

“基礎科學의 育成만이 우리의 살길”

집중적인 研究費 지원으로 기초과학 活性化시켜야

해방직후 혼란기인 1946년 10월 物理學者와 더불어 大韓數物學會로 창립하여 1952년에 大韓數學會로 분리된 이래 1978년 社團法人으로 再發足되면서 꾸준히 성장해온 大韓數學會는 그동안 外形상의 발전 못지않게 우리나라 數學界 발전을 위해서 커다란 교두보 역할을 해온게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기초과학분야가 안고 있는 문제점 못지않게 數學界 또한 앞으로 해결해 나가야 할 당면과제가 산적해 있다.

기초과학의 핵심인 數學분야의 육성·발전을 위해 진력하고 있는 大韓數學會 林禎垸회장(연세대학교 이과대학 수학과교수)을 만나 創立 40주년을 맞아 학회가 추진하고 있는 사업계획과 함께 이모저모를 알아보았다.

『國力伸張과 더불어 數學분야도 다른 모든 과학기술분야와 마찬가지로 급격한 발전을 이룩해 왔읍니다. 우리나라의 연구논문들이 외국의 저명잡지에 많이 게재되고 있고 우수 논문으로 뽑혀 인용될 정도의 수준에 이르렀음이 이를 단적으로 나타내 주는 한 예라고 볼수 있지요』 大韓數學會 林禎垸회장은 數學人口의 팽창과 함께 교육수준의 향상 등으로 장족의 발전을 거듭해 온것은 사실이나 학회 설립당시인 40년 전에 비하면 질적·양적인 면에서 급격한 발전을 이룩해 왔으나 아직까지 만족할만한 수준에 이른 것은 아니므로 國際交流 등을 활발히 가져 세계와 어깨를 나눌 정도의 수준으로 향상시켜 나가는 것이 韓國數學界의 바램이라고 털어놓는다.

林회장은 해방 당시 대학에 제대로 된 數學科 하나도 없던 것이 오늘날에는 전국적으로 50개가 넘으며 그 교과내용의 수준도 높아지고 다양화된 것은 물론 각 대학에 있어서의 大學院교육



◇林 禎 垸 회장

도 강화되어 10여개의 대학에 박사과정이 설치되어 해마다 많은 수학자가 배출되고 있는데 반해 이들에게 문호를 개방하고 있는곳은 학계나 기업체의 전산실정도가 고작이라고 아쉬워한다.

『우리나라에서도 기초과학의 중요성이 많이 강조되고 있기는 하지만 당장에 이익이 돌아보는 응용과학쪽에 많은 연구비가 지원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우리 후손에게 물려줄 문화유산은 기초학문위에 꽃피운 것이라야 견고하므로 우리나라도 기초과학의 육성, 발전에 보다 많은 힘을 기울여야 합니다』 林회장은 2차세계대전 발발의 주동자인 독일이나 일본이 그토록 빨리 회생할 수 있었던 것도 모든 기초학문이 강했기 때문이며 최근에 中共도 미국의 일류대학에 많은 학자를 파견, 수학·물리 등의 분야에서 PhD를 획득하도록 하는 것도 다 기초과학의 중요성을 절감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한다.

『사회전체가 균형있는 발전을 이루어야 그 기

반 위에서 노벨상 수상자도 나올 수 있는 것이 지 하루아침에 된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은 금물입니다。」林회장은 기초과학의 중요성을 계속 홍보하여 국민 모두가 중요성을 인식하도록 분위기를 조성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기초과학에 대한 집중적인 연구비 지원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덧붙인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수한 학생들이 기초과학 분야에 관심을 갖고 많이 지원할 수 있는 社會風土가 조성되어야 하여 그렇게 될 때 우수한 인재들이 배출되어 우리나라 기초과학이 활발히 꽃필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한다.

林회장은 우리나라도 지금부터라도 제2의 도약을 위해서 기초과학의 기반없는 모든 분야의 발전이 어렵다는 인식하에 기초과학 육성에 주력해야 한다고 힘주어 말한다. 특히 자연과학 및 공학을 육성, 발전시키는데 필수적으로 뒷받침하는 기초분야로서 數學의 필요성이 더욱더 강조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이면서 각 재단이나 정부부처에서 지급하는 연구비가 순수수학 분야에는 극히 적게 지급되고 있음을 볼때 수학계의 몸담고 있는 사람으로서 몹시 안타깝다고.

『그러나 우리나라 數學교육의 향상 발전을 위해 설립된 大韓數學회가 올해로 창립 40주년을 맞아 이제 장년의 완숙기에 들어서게 됨에 따라 우리 수학계도 지난 40년을 뒤돌아보고 앞으로 지향해야 할 바가 무엇인지 다짐해 봄으로써 새로운 이정표를 세워 수학분야의 발전을 위해 힘써 나갈 작정입니다.』林회장은 지난 40년 동안은 문자 그대로 無에서 시작하여 큰 기틀을 다져놓은 시기였지만 아직도 재정적인 자립도가 약하고 연구여건도 어려운 형편에 있어 앞으로 해야 할 일이 산적해 있다고 말한다.

林회장은 창립 40주년을 맞아 外部人士의 도움없이 순수 회원들만의 힘으로 學會 사무실을 련했는데 이를 계기로 학회활동이 보다 활성화 될것으로 내다보고 몇가지 사업을 추진중이라고 설명한다.

그중의 하나가 數學人口의 저변확대를 위해 全國규모의 數學경시대회를 개최, 우수학생을

선발해 세계수학경시대회에 파견함으로써 우수한 학생들이 보다 많이 수학에 관심을 갖도록 할 계획이라고 한다.

이와 함께 노벨상 수상자급이 아니라도 실질적으로 우리에게 도움을 줄수 있는 외국학자를 초청, 국제교류를 활발히 하고 외국학회와의 학회지교환 및 정보교류에도 힘을 작정이라고 밝힌다. 특히 학회지 2백부를 외국의 유명연구소나 대학 도서관 등에 무료로 보내 우리 수준을 알리고 외국저명저널에 우리 논문이 많이 게재될 수 있도록 힘썼다고.

또한 현재 발간되고 있는 회지와 회보 외에 國文전용의 학회지를 별도로 발간, 數學用語 체계화에 일익을 담당하는 한편 영어일변도의 대학 및 대학원의 우리말교재도 발간할 계획이다.

그리고 中·高校교사를 대상으로 한 수학교육 심포지움을 보다 활성화시켜 수학교육의 합리적인 개선방안 모색에도 주력하는 한편 앞으로는 中·高校 수학교사도 회원으로 영입하여 새로 발간되는 회보에 이들의 논문을 수록토록해 우수 논문에 대한 시상제도도 마련할 작정이다.

林회장은 특히 장기적인 사업으로 우리나라에 現代數學이 도입된 1800년대말 부터 數學會 설립전까지 우리나라 현대수학의 흐름을 한눈에 알 수 있는 현대수학의 계보를 펴낼 작정인데 우리나라에 현대수학을 처음으로 도입한 崔奎東 선생(초대 서울대총장)을 비롯 李源喆씨에서 文梯根씨에 이르기까지 10여명의 人脈을 중심으로 生家·유적 등을 찾아서 현대수학의 계보를 파악하는 작업을 실시할 예정이다.

林회장은 학회 창립 40주년을 맞아 여러가지 많은 사업구상을 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어려운 여건속에 있으므로 하나하나 내실있게 실현성 있는 계획을 세워 단계적으로 차근차근 추진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히면서 『뭘니뭘니해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數學분야의 발전 뿐만아니라 앞으로 제2의 도약을 위해서는 기초학문의 기반없는 모든 분야의 균형있는 발전이 어렵다는 인식하에 기초과학육성에 주력해야 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한다. <權光仁記>